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 '환경정화행사' 개최

윤 차진형기자 | 승인 2026.06.17 18:14 | 11면

지역 거버넌스 구축으로 농업용수 수질관리 강화·공동체 의식 제고



▲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는 17일 김해시 진례저수지 일원에서 유관기관 및 환경단체와 합동으로 환경정화행사를 실시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지사장 손홍모)는 지난 17일, 깨끗하고 안전한 농업용수 공급과 지역 사회 환경 보전을 위해 김해시 진례저수지 일원에서 유관기관 및 환경단체와 합동으로 환경정화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거버넌스(수질환경보전회)를 통한 농업용수 수질관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합동수질개선 활동을 통해 환경보호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한국농어촌공사 직원들을 비롯해 지자체 관계자, 지역 환경단체 회원 등 2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저수지 수변 구역을 중심으로 유입된 플라스틱, 비닐 등 각종 방치 쓰레기와 부유물을 집중 수거하며 수질 오염원 제거에 땀방울을 흘렸다.

김해양산부산지사는 이번 합동 정화활동을 계기로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자체 및 환경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하며 저수지 수질 모니터링과 오염

원 유입 차단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손흥모 지사장은 "안전한 농산물 생산의 출발점은 깨끗한 농업용수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거버넌스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질관리 능력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청정 수자원을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차진형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차진형기자